



경덕왕 설화 연구

〈三國遺事〉의 서술 방식과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Authors) 최호석

출처
(Source) [한국민속학 30](#), 1998.12, 245-264(20 pages)
[The Korean Folklore 30](#), 1998.12, 245-264(2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민속학회](#)
The Korean Folklore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801186>

APA Style 최호석 (1998). 경덕왕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30, 245-2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4 10:1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경덕왕 설화 연구

- <三國遺事>의 서술 방식과 역사 인식을 중심으로 -

최호석*

1. 서론

본고는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¹⁾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서술 방식과 일연의 역사 인식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三國遺事>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²⁾ 이는 <三國遺事>가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성격의 글을 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삼국유사>가 기본적으로 史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는 경덕왕 설화는 일연이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등을 이용하여 경덕왕대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三國遺事>의 기사가 造作的인 냄새가 짙다는 김사엽의 주장을 ‘(三國)遺事の 기록을 비유나 상징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한 이용재의 논의는 바로 <三國遺事>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³⁾ 본고는 이러한 인식 아래

* 동덕여대 강사

- 1) <三國遺事>의 원문 인용 및 검색은 김용옥, 三國遺事引得(통나무, 1992)을 이용했음.
- 2) <三國遺事>의 성격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1),” <한국민속학> 29집(한국민속학회, 1998), 502쪽 참조.
- 3) 金思燁, 鄉歌의 文學的 研究(계명대학교 출판부, 1979), 46-47쪽.
李雄宰, “新羅鄉歌의 社會性 研究,”(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11쪽에서 재인용.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및 일연이 史官으로서 지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이 같은 논의는 그 동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三國遺事>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三國遺事>의 종합적 연구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은 경덕왕이 충담사를 맞이하여 <安民歌>를 얻는 전반부와, 경덕왕이 표훈대덕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얻는 후반부로 나뉜다. 그동안 이 설화는 충담사의 <安民歌>가 여기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으나, <安民歌>에 치우친 기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설화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대했다. 그러나 이 설화의 중심은 후반부에 놓여 있으며, 충담사의 <安民歌>는 경덕왕과 표훈대덕 사이에 있었던 일화에 대한 배경 설명이자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덕왕 설화의 후반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 충담사의 <安民歌>와 경덕왕대의 사회상

일찍이 김부식은 신라를 3代로 나누었는데, 그에 의하면 시조인 朴赫居世부터 28대 眞德女王까지가 上代, 29대 太宗武列王부터 36대 惠恭王까지가 中代, 37대 宣德王부터 56대 敬順王까지가 下代가 된다.⁵⁾ 따라서 본고에서 이야기할 景德王代와 惠恭王代는 바로 中代에서 下代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위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⁶⁾ 이기백은 이 시기를 親王派와 反王派가 대립하는 가운데

4) <三國遺事>의 종합적 연구를 표방한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취사선택된 일부 자료에서 나온 결론을 <三國遺事>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많았다. 본고는 이 같은 연구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경덕왕 설화만을 대상으로 거기에 드러난 <三國遺事>의 서술 방식과 역사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결론은 일단 경덕왕 설화에만 국한되며, 그것이 <三國遺事> 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앞으로 계속 고구해야 할 것이다.

5) <三國史記> 卷第十二 新羅本紀 第十二 [敬順王].

<三國史記>의 원문 인용 및 번역, 검색은 다음의 것을 이용했다.

한국사사료연구소 표점·교감·번역, 삼국사기 CD 96(한글과컴퓨터, 1996).

6) 본고에서는 경덕왕 설화가 내용의 중심이 되지만 그 안에는 혜공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같이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경덕왕의 재위기간은 24년(742-765)이며, 혜공

전제주의적 경향이 부정되고 上代(中古) 귀족연합이 복구되는 경향을 걷게 된 시기로 보았다.⁷⁾ 그러나 친왕파와 반왕파를 고정적인 실체로 보고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이라는 도식적인 구도로 당대의 정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⁸⁾ 그리고, 전제왕권, 또는 전제주의적 경향이란 中代社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下代에도 계속된 것이다.⁹⁾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이해는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과 이를 둘러싼 진골귀족들의 권력 다툼이라는 소박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장에서는 경덕왕대의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일연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경덕왕 설화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唐에서) (道)德經 등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았다. 왕은 24년을 다스렸다. 五岳·三山神 등이 때때로 대궐 뜰에서 왕을 모셨다.(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¹⁰⁾

여기서 護國神인 오악·삼산신의 출현은 그간 국가의 안위에 대한 경계, 경고의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 흥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¹¹⁾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경덕왕이 24년을 다스리는 동안 오악·삼산신이 때때로 나타났다는 말은 경덕왕대가 문제적인 시대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때에 경덕왕은 歸正門에 행차하여 南山 三花嶺의 彌勒世尊에게 차를 드리고 돌아오는 충담사를 맞이한다. 그리고는 몇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 백성을 다스

왕의 재위기간은 16년(765-780)이다.

- 7)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之 政治的 變革,”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253쪽.
- 8) 이영호는 이기백이 반왕파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한 김양상과 김웅이 사실은 친왕파였음을 주장했는데,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견해로 생각된다. 李泳鎬, “新羅 惠恭王代 政變의 새로운 解釋,” <歷史教育論集> 제13·14집(역사교육학회, 1990).
- 9) 申滄植, “新羅 中代 專制王權의 展開過程,” 統一新羅史研究(三知院, 1990).
- 10)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앞으로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따로 출전을 밝히지 않겠다.
- 11) 五岳·三山神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문태, ‘<安民歌>와 敘事文脈,’ [三國遺事]의 詩歌와 敘事文脈 研究(太學社, 1995), 155쪽 주 27)에 잘 정리되어 있다.

려 편안하게 하는 노래(理安民歌)를 지어달라고 부탁한다. 충담이 명을 받들어 지은 <安民歌>는 다음과 같다.

君隱父也	君은 아버지요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사랑하실 어머니요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은 어린 아이로고! 하실지면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사랑을 알리이다.
窟理叱大勝生以支所音物生	꾸물거리며 살손 物生이
此勝口食惡支治良羅	이를 먹여 다스려져
此地勝捨遺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할지면
國惡支持以支知古如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 爲內尸等焉	아오,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
할지면,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라 안이 태평하니이다 ¹²⁾

충담사의 <安民歌>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에 따라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그것이 治國의 大方을 제시했다는 데에는 異論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安民歌>의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경덕왕 24년(765)설¹³⁾과 경덕왕 15년(756) 또는 17년(758)설¹⁴⁾로 나뉜다. 그 중에서 충담사의 이야기가 표훈대덕의 이야기 앞에 있으며 표훈대덕의 이야기는 해공왕이 태어나기 전이라는 점, 그리고 <安民歌>에서 보이는 역사적, 경제적 상황이 경덕왕 15년, 또는 17년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 <安民歌>가 창작된 것으로 본 김승찬의 견해가¹⁵⁾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사실 <安民歌>의 창작시기를 가리는 것은 그리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다. 경덕왕 설화는 일연에 의해 재구된 역사이며, 표면적으로는 <安民歌>나 표훈대덕의 이야기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볼 때, 경덕왕대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¹⁶⁾ <安民歌>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투영된

12) 양주동, 增訂古歌研究(一潮閣, 1987 重版), 880쪽.

13) 朴魯璋, '安民歌,' 新羅歌謠의 研究(열화당, 1982), 240쪽.

14) 金承瓌, 韓國上古文學論(새문社, 1987), 137쪽.

15) 같은 곳.

16) 김상현은 뒤에 나오는 표훈과 경덕왕의 만남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그는 표훈이 의상의 제자가 되어 공부하던 때와 해공왕이 태어나던 때까지

경덕왕대의 ‘非安民的 實狀’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安民歌>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安民歌>의 1구부터 4구까지는 도입부로, 백성들이 임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임금과 신하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으며,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와 같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백성들을 대해야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5구부터 8구까지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계책을 제시하는데, 그 계책이란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백성들은 이 나라를 떠나게 돼,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9구와 10구는 齊景公이 공자에게 정치를 묻자 공자가 ‘(정치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한 데서 나온 것으로,¹⁷⁾ 나라가 태평하게 되려면 임금과 신하, 백성이 각각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이 말은 곧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백성들이 백성답지 못한 현실의 우회적 비판인 것이다. 100여 년 전, 唐의 蘇定方이 백제 정벌을 마치고 신라마저 정벌하려다가 실패했을 때처럼 “왕이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들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아랫사람들은 웃사람을 부형과 같이 섬기고 있”¹⁸⁾였다면 <安民歌>와 같은 노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굶주리고 있으며, 국가는 그 안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84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표훈과 경덕왕이 실제로 만났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金相鉉, “新羅 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東方學志> 44(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 1984), 79쪽.

이같은 사실은 증담사와 표훈대덕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경덕왕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연이 경덕왕대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서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덕왕의 어느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연이 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17) <論語> [顏淵].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臣臣父父子子” 公曰: “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得而食諸!”

18) <三國史記> 卷 第四十二 列傳 第二 [金庾信].

<定方>既獻俘, 天子慰藉之曰: “何不因而伐<新羅>.” <定方>曰: “<新羅>其君仁而愛民, 其臣忠以事國, 下之人事其上, 如父兄, 雖小, 不可謀也.”

그렇다면 경덕왕대에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경덕왕은 국왕 중심의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덕왕 4년(745) 이후 관료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경덕왕 6년(747)에는 국학에 제업박사(諸業博士)를 설치하여 관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갔고, 경덕왕 7년(748)에는 정찰(貞察) 1원을 두어 백관을 규찰하게 하였다. 그리고 경덕왕 16년(757)에 지방군현의 명칭을, 18년(759)에 중앙관부의 명칭을 바꾸는 등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였다. 이러한 경덕왕의 개혁정치는 中代를 통하여 형성되어왔던 지배체제의 모순을 제거하고, 나아가 관료체제의 정비를 통하여 왕권강화를 기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은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덕왕 15년(756) 김사인이, 해마다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난 사실을 들어 시국 정치의 옳고 그름을 극렬하게 비평한 상소를 올린 것과, 이미 神文王代에 관료체제를 정비하면서 폐지해버렸던 녹읍제가 경덕왕 16년(757) 다시 부활되었다는 사실은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¹⁹⁾ 그리고 이 같은 권력 다툼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불안정과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와 '나라 안이 유지되지' 못하게 했다. 권력 다툼에 바빠 백성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왕과 귀족들, 그리고 거둬진 기상 이변, 이것들은 모두 백성들의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경덕왕 14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응천주의 向德이라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자 자기의 다리살을 베어 아버지에게 먹일 정도였다.²⁰⁾ 게다가 경덕왕 16년 월급제를 폐지하고 녹읍제를 부활시킴으로써 백성들은 농사하기 어려운 날씨에다가 귀족들의 수탈까지 받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²¹⁾

19) 주보돈,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한길사, 1995), 325-327쪽 요약.

20)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九 [景德王].
十四年, 春, 穀貴民饑. <熊川州><向德>, 貧無以爲養, 割股肉, 飼其父. 王聞, 賜賚頗厚, 仍使旌表門閭.
향덕의 이야기는 당시 국내에 꽤 널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三國史記> 卷 第四十八 列傳 第八에 열전의 주인공으로 입전되었으며, <三國遺事>에는 向得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사가 실려 있다.<三國遺事> 卷 第五 孝善 第九 [向得舍知 割脂供親]

21) <삼국유사>를 보면 경덕왕대에 백성들이 관음신앙과 정토신앙을 믿은 예가 많이 나온다. 이는 당시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덕왕대에 있었던 관음신앙의 예는 <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 第四 [敏藏寺]와 [芬皇寺千手大悲尊得眼]에서, 정토신앙의 예는 卷 第五 感通 第七 [郁面婢念佛西昇]과 卷 第五 避隱 第八 [布川山五比丘]에서 볼 수 있다.

<安民歌>의 ‘이들을 먹여서 다스리라’는 구절은 바로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진골귀족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죽어 가는 불쌍한 백성들에 대한 충담사의 눈물어린 애정에서 나온 祈願인 것이다. 백성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왕과 신하들, 만약 그들이 <安民歌>에서 말하듯이 ‘임금답게, 신하답게’ 했다면 굶주려 죽는 백성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왕에게 있다. 임금이 임금답게 한다면 신하가 신하답게 할 것이며, 백성도 백성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이 임금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하들이 신하답게 행동하지 않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齊景公과 공자의 대화 조금 뒤에는 季康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정치는 바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술선해서 바르게 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²²⁾ 이 말은 임금부터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술선수범해야 하며, 임금이 그럴 때 신하들도 백성을 위해 바르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즉 모든 문제는 왕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니 왕이 먼저 욕심을 버리고 모범을 보이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왕권 강화에만 집착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은 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나라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나 왕권 강화에 대한 경덕왕의 욕망은 이미 정도를 지나쳐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었기 때문에 충담사는 자신을 잡으려는 경덕왕을 뿌리치고 떠난다. 이 같은 왕의 욕망이 보여주는 결과는 다음에 나오는 표훈대덕의 이야기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결국 <安民歌>는 왕이 왕권 강화에만 힘썼기 때문에 파생되는 귀족들과의 권력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22) <論語> [顔淵].

季康子 問政於孔子, 孔子對曰: “政者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

3. 역사와 상징

1. 표훈대덕과 경덕왕

경덕왕 설화의 후반부는 왕이 표훈대덕을 통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얻은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시작이 여간 심상치 않다. 먼저 도입부분을 보자.

왕의 옥경이 8치라서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비를) 폐하고 사랑부인으로 봉했다.(王玉莖長八寸，無子，廢之，封沙梁夫人.)

이 구절은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보여 준다. 첫째, 왕의 性器가 8치였다는 것, 둘째, 왕의 性器가 8치라서 아들이 없었다는 것, 셋째, 아들이 없어서 왕비를 폐하고 사랑부인으로 봉했다는 것. 이 세 사건은 연쇄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는 경덕왕 설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먼저 왕의 性器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적 비밀을 말하는 것은 금기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라와 같은 전제국가에서 왕의 신체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신라 48대 景文王은 왕위에 오른 뒤에 귀가 나귀 귀처럼 길어졌다. 그러나 이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겨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幃頭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대밭(竹林)에 가서 그 사실을 소리쳤다.²³⁾ 그런데 경문왕의 귀보다 더욱 비밀스러워야 할 것이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三國遺事>에서 경덕왕의 性器에 대해 기록한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자.

앞에서 인용한 ‘王玉莖長八寸’이라는 구절은 ‘왕의 性器가 여덟 치나 되기 때문에’와, ‘왕의 性器가 여덟 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든지 경덕왕의 자질이 국왕이 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23)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第四十八代 景文大王].
乃登位，王耳忽長如驢耳。王后及宮人皆未知，唯幃頭匠一人知之。然生平不向人說。其人將死，入道林寺竹林中無人處，向竹唱云：“吾君耳如驢耳。”

을 보여 주는 것이다. <三國遺事>에는 왕의 性器를 언급한 기록이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바로 22대 智證王에 대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지증왕의 性器는 한 자 다섯 치나 되었다고 한다.²⁴⁾ ‘1자 5치나’ 되는 지증왕의 그것과 ‘8치밖에’ 안 되는 경덕왕의 그것,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三國史記>에서는 지증왕에 대해 ‘체격이 크고 담력이 뛰어났다’²⁵⁾고 높이 평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지증왕의 性器의 크기는 그의 체격과 담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증왕의 거대한 성기는 곧 지증왕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덕왕의 그것은 지증왕의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작아 보인다. 이러한 신체적인 왜소함은 경덕왕의 정신적인 왜소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는 지증왕의 반밖에 안 될 정도로 경덕왕의 자질과 도량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일연이 특별히 왕의 성기에 대해 기록한 것은 왕의 그것이 평균적인 남성의 것보다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의 구절은 ‘왕의 性器가 여덟 치나 되기 때문에’로 풀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性器는 남성의 상징으로, 남성들은 종종 그것의 크기로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男性性은 때로는 ‘힘’으로 발현되는데, 구체적이고 낮은 차원의 남성성은 ‘물리적인 힘’으로 발현되며, 추상적이고 높은 차원의 남성성은 ‘권력’의 형태로 발현된다. 따라서 경덕왕의 性器가 ‘8치나’ 되었다는 것은 경덕왕이 매우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⁶⁾

경덕왕의 性器의 크기가 갖는 의미는 이같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위의 인용문은 경덕왕이 권력욕은 매우 컸지만 왕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경덕왕이 왕권

24)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智哲老王].

第二十二 智哲老王, 姓金氏, 名智大路, 又智度路. 諡曰智證, 諡號始于此. - 中略 - 王陰長一尺五寸, 難於嘉耦, 發使三道求之.

25) <三國史記> 卷 第四 新羅本紀 第四 [智證麻立干].

王體鴻大, 膽力過人.

26) 이용재는 이 記事가 경덕왕의 無子로 인한 추측에서 생겨났으며, 왕이 性不具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불구는 그의 성격을 포악하게 만들었고, 성불구에 대한 반대급부로 好樂性도 생겨났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玉莖長八’은 ‘권력의 지나친 팽창’을 시도함으로써 생긴 경덕왕의 포악성에 대한 기사일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용재, 앞의 글, 117-118쪽.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실과 경덕왕이 술선수범하지 못해 정치적인 혼란이 왔다는 <安民歌>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경덕왕이 갖고 있는 이 같은 문제는 곧 ‘아들이 없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여기서 아들은 경덕왕이 온 힘을 들여 추구한 왕권 강화 정책의 완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後嗣가 없다는 사실은 바로 왕권 강화 정책의 실패 및 王統의 단절을 의미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표훈대덕과 경덕왕의 만남은 바로 이 後嗣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왕비를 폐하고 滿月夫人을 새로 왕비로 받아들였지만 만월부인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나도 後嗣를 출산하지 못하자²⁷⁾ 경덕왕은 표훈대덕을 부른다. 기실 아들을 낳는 것은 人力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경덕왕이 초빙한 표훈대덕은 이에 아주 적임자였다. 왜냐하면, 그는 “일찍이 불국사에 살면서 늘 천궁을 왕래”²⁸⁾한 사람으로, 경덕왕의 뜻을 天帝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경덕왕의 부탁을 받은 표훈대덕은 天帝에게 다녀온다. 본디 天帝는 경덕왕에게 자식을 주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늘 천궁을 왕래하던 표훈의 부탁을 듣자 天帝는 아들은 안 되지만 딸이라면 괜찮다고 너그럽게 허락을 한다.(帝有言, 求女即可, 男郎不宜) 그렇지만 경덕왕은 딸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딸을 아들로 바꾸기를 원한다. 오직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훈대덕은 다시 한 번 하늘에 올라간다. 그때 天帝는 아주 심각한 말을 던진다.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딸을 바꾸어 아들로 되게 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帝曰: “可則可矣. 然爲男則國殆矣.”) 天帝는 경덕왕에게 양자택일을 하게 한다. 아들이냐, 아니면 나라의 안정이냐? 이에 대한 경덕왕의 대답은 단호하다. “나라가 비록 위태로워 지더라도 아들을 얻어 뒤를 잇게 되면 만족하오.”(王曰: “國雖殆, 得男而爲嗣足矣.”)

표훈대덕이 천제에게 갔다왔다는 것은 사실일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27) 만월부인은 경덕왕 2년(743) 4월에 왕비가 되었지만 아들인 혜공왕을 낳은 것은 경덕왕 17년(758) 7월 23일의 일로, 왕비가 된 후 15년 동안 후사가 없었다.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三 [景德王]. 二年, 夏四月, 納舒弗那<金義忠>女, 爲王妃. -中略- 十七年, 秋七月二十三日, 王子生.

28)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 第五 [義湘傳教].

訓曾住佛國寺, 常往來天宮.

것을 허황한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일연이 생각한 역사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표훈대덕과 경덕왕이 만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훈대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경덕왕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

앞에서 표훈대덕이 늘 천궁에 다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華嚴經이 佛의 成道處인 菩提樹下를 出發點으로 하여 온 法界에 퍼지는 것을 상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⁹⁾ 하지만 경덕왕 설화와 같이 볼 때, 표훈이 천궁에 다녔다는 것은 신라시대의 천신 신앙이 표훈대덕의 이야기에 부회된 것으로,³⁰⁾ 이는 표훈대덕이 당대에 천상을 왕래하는 법력을 지닌 성인으로서 이름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³¹⁾ 현실적인 인물로서의 표훈대덕은 義湘의 직계제자로, 스승인 의상으로부터 華嚴學을 전수받았으며, 金大城에게 화엄학을 가르친 바 있는 인물이다.³²⁾ 그리고 그는 의상의 제자들인 悟眞, 智通, 眞藏 등과 더불어 亞聖으로 불렸으며³³⁾, 비록 의상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의상과 나란히 興輪寺 金堂에 모셔졌던 十聖 중의 한 사람이었다.³⁴⁾ 이 때문에 균여로부터 ‘十聖弟子’라 불린 것을 볼 때,³⁵⁾ 표훈대덕은 當代 뿐만 아니라 後代에 와서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고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상의 ‘華嚴사상은 신라 中代 專帝王權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했다. 곧 의상의 <法界圖>에 一微塵中 含十方이라는 구절은 우주와 다양한 현상을 결국 하나로 귀결시킴으로써, 전제왕권을 중심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³⁶⁾ 따라서 표훈이 스승인 의상으로부터 계승한 화

29) 金苻石, 華嚴學概論(法輪社, 1974), 27쪽, 111쪽.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民族史, 1991), 56-57쪽.

30) 신라시대의 천신신앙이 역사적 인물에 부회된 예로는 <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一 [天賜玉帶]를 들 수 있다.

31) 김상현, 앞의 책, 157쪽.

32) 均如, 十句章圓通記 卷下, 김상현, 같은 책, 156쪽에서 재인용.

33) <三國遺事> 卷第四 義解 第五 [義湘傳教].

徒弟悟眞, 智通, 表訓, 眞定, 眞藏, 道融, 良圓, 相源, 能仁, 義寂等十大德爲領首, 皆亞聖也, 各有傳.

34) <三國遺事> 卷第三 興法 第三 [東京興輪寺金堂十聖].

東壁坐庚向泥塑: 我道, 厭躄, 惠宿, 安舍, 義湘. 西壁坐甲向泥塑: 表訓, 蛇巴, 元曉, 惠空, 慈藏.

35) 김상현, 앞의 책, 55쪽, 주11) 참조.

엄사상은 경덕왕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경덕왕이 표훈대덕을 만난 원인을 알 수 있다. 즉 경덕왕은 자신의 왕권 강화정책에 표훈대덕으로 대표되는 불교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³⁷⁾

그러나 표훈대덕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天帝의 입을 빌어 경덕왕의 욕심을 막으려고 한다. 즉, 아들은 안 되지만 딸은 괜찮다고 한 것이나, 경덕왕이 끝내 아들을 고집할 경우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은 왕권 강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권력에서 소외된 귀족들이 이에 반발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백성들은 이러한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를 떠날 것이라는 의미다. 일찍이 맹자도 상하가 다투어 이익을 취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³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아들을 끝내 고집한다. 그에게는 나라의 안정보다는 왕권의 강화가 더욱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경덕왕은 왕권이 강화되면 나라가 저절로 안정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표훈대덕은 天帝의 입을 빌려 경고함으로써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일단은 반대를 한다. 天帝는 전래의 천신 신앙에서 나온 관념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人心은天心’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다. 즉, 民心이라는 추상적 관념이 인격화된 것이 天帝로, 천제의 경고는 백성들의 염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덕왕이 표훈대덕을 통해 천제에게 아들 얻기를 청한 것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불교계의 고

36) 金杜珍, ‘佛敎와 儒敎,’ 한국사연구회 편, 제2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7), 103쪽.

37) 경덕왕이 승려들의 도움을 청한 예는 <三國遺事>에 여러 번 보인다. 경덕왕 11년에는 진표를 만나 보살계를 받았으며, 경덕왕 12년과 13년에는 가뭄이 들자 범상종의 중인 대현과 화엄종의 중인 법해를 청해 가뭄을 해소했다. <三國遺事> 卷 第四 義解 第五 [眞表傳簡], 卷 第四 義解 第五 [賢瑜珈華嚴]. 한편 표훈대덕의 ‘대덕’이란 용어는 순수한 僧職과 다른 의미의 職位를 의미한다는 기존 연구를 참고할 때, 표훈대덕은 왕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洪再善, “金石文에 보이는 新羅僧官,” 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동간행위원회, 1984), 46쪽.

38) <孟子> [梁惠王章句上].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萬乘之國殺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殺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尊不賢.”

승인 표훈대덕이 경덕왕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회유할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⁹⁾

표훈대덕은 경덕왕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경덕왕을 돕는다. 표훈대덕이 경덕왕을 도운 것은 ‘승려는 군신과 일반인 사이에서 이들을 평안하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⁴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경덕왕은 표훈대덕의 도움에 힘입어 아들을 얻게 된다. 이는 곧 표훈대덕이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일정하게 기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태어난 그날, 하늘에는 우레와 번개가 심하게 내리치고 16곳의 절에 벼락이 떨어졌다.⁴¹⁾ 이는 왕자의 탄생과 표훈대덕의 행동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으며,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 백성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후 표훈대덕은 다시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는데,⁴²⁾ 이는 하늘과 땅의 단절, 곧 민심이 경덕왕으로부터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한편, 표훈대덕 또한 민심을 대변하거나 민심을 어루만져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2. 三毛夫人과 滿月夫人

경덕왕 설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경덕왕의 왕비들인데, 이들은 모두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덕왕은 즉위한 후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왕비를 폐하여 沙梁夫人으로 봉했는데, 사랑부인은 三毛夫人이라고도 불렸다.⁴³⁾ 그런데, 神文王으로부터 惠恭王에 이르는 6명의 왕 가운데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孝昭王을 제외한 모든 왕에게는 2명의 왕비가 있었다. 이는 왕비의 지위를 둘러싼 지배집단간의 권력쟁탈전이 치열했다는 사실

39) 이러한 모습은 요즘에도 볼 수 있다. 선거철만 되면 각 후보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종교 지도자가 신도들에게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0) 鄭出憲, “三國遺事 所載說話의 世界觀에 對한 考察,” <語文論集> 28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9), 179쪽.

41)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三 [景德王].

十七年, 秋七月二十三日, 王子生. 大雷電, 震佛寺十六所.

42) 訓欲下時, 帝又召曰: “天與人不可亂. 今師往來如隣里, 漏洩天機, 今後宜更不通.”

43) <三國遺事> 卷 第一 王曆 第一.

先妃三毛夫人, 出宮無後.

을 보여준다.⁴⁴⁾ 이렇게 볼 때 삼모부인이 쫓겨난 것은 後嗣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비의 지위를 둘러싼 지배집단간의 권력쟁탈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왕비의 폐출은 경덕왕의 왕권 강화정책의 정략적 측면에서 나온 것이며, 삼모부인은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三毛夫人에 대해 살펴보자. <三國史記>에는 삼모부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다만 경덕왕의 왕비가 伊滄 順貞의 딸이라는 기록만 나온다.⁴⁵⁾ 그런데 <續日本紀>에는 金順貞이 성덕왕 24년(725)에 죽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왕이 애도했다는 기록과⁴⁶⁾, 김순정이 上宰였는데 그 孫인 김옹이 혜공왕 10년에 김순정이 가졌던 상재의 위를 이어 계속 집정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⁴⁷⁾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삼모부인의 아버지인 김순정은 성덕왕대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모부인의 정체에 대한 또다른 단서는 <三國遺事>에서 찾을 수 있다. 경덕왕 설화 바로 앞에 水路夫人의 이야기가 전하는데,⁴⁸⁾ 그 내용은 성덕왕대에 純貞公이 강원도 지방의 반란을 평정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에 생긴 일로 이해된다.⁴⁹⁾ 삼모부인은 바로 순정공의 부인인 수로부인의 딸로 추정된다. 이는 거기에 수로부인의 남편으로 나오는 純貞公과 <三國史記>에 나오는 伊滄 順貞이 동일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비록 한자가 ‘純’과 ‘順’으로,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이 같은 차이는 우리 고유어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⁵⁰⁾ 위의 두 가지 기록을 검토해 볼 때, <續日本紀>

44) 후보돈, 앞의 글, 324쪽.

45)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三 [景德王].

妃伊滄順貞之女也.

46) <續日本紀> 卷 第九 神龜 三年(726) 七月.

金奏勳等奏稱 順貞以去年六月三日卒 哀哉 賢臣守國 爲朕股肱 今也則亡 殲我吉士' 佐伯有義 編, 續日本紀 卷上, 六國史, 三卷(朝日新聞社, 昭和 4年=1929), 196쪽.

47) <續日本紀> 卷 三十三 寶龜 五年(774) 三月.

本國上宰金順貞之時 舟楫相尋 常修職貢 今其孫邕 繼位執政 追尋家聲 係心共奉 佐伯有義 編, 續日本紀 卷下, 六國史, 四卷(朝日新聞社, 昭和 4年=1929), 273쪽.

48)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水路夫人].

49)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 풀이(集文堂, 1990), 73-74쪽.

50) 동일인의 이름을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서 달리 표기한 예는 본고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에서도 보인다. 예를 들면 주 20)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三國史記>에서는 向德으로, <三國遺事>에서는 向得으로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만월부인의 아버지 이름 또한 <三國史記>에서는 義忠으로, <三國遺事>에서는 依忠으로 각각 달리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三國遺事> 안에서도 동일인에 대해 다른 이름을 적고 있는

에 나오는 順貞과 <三國遺事>에 나오는 純貞은 모두 ‘성덕왕대에 활동한 높은 신분의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름의 한자 표기 또한 매우 유사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정이 비록 지위는 높았지만 그 세력은 약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三國遺事>에서 純貞公이 상당한 신분의 사람인데도⁵¹⁾ 불구하고, 강릉에 부임하러 가는 도중에 용에게 자신의 부인인 수로부인을 빼앗기는 사건이 생긴다.⁵²⁾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상황에서 정부의 고관인 순정공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 점과 수로부인이 이번뿐만 아니라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神物에게 붙들렸다는 점이다.⁵³⁾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은 순정공에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세력이나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삼모부인이 폐위될 때조차 그 가족들의 반대가 없었다는 것과,⁵⁴⁾ 삼모부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김웅⁵⁵⁾이 경덕왕 19년(760)에야 중시로 임명된 사실

것을 볼 수 있다. <三國遺事> 卷 第五 避隱 第八 [信忠掛冠]에서는 단속사를 지은 사람의 이름을 李俊으로 적고는, 高僧傳에는 李純이라고 했다고 기록하였다.

51) 尹榮玉, 新羅詩歌의 研究(螢雪出版社, 1980), 165쪽.

52)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水路夫人].

晝饑次, 海龍忽攬夫人入海.

성덕왕대의 역사적 정황을 살펴 이를 민심 수습을 하려고 했던 일이 좌절된 것으로 본 조동일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동일, 앞의 책, 74쪽.

53)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水路夫人].

水路姿容絕代, 每經過深山大澤, 屢被神物掠攬

54) 이는 만월부인이 왕비가 되고 15년이 넘도록 왕자를 낳지 못했는데도 계속 왕비 자리를 유지했던 사실과, 효성왕 대에 永宗의 딸이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왕비의 질투를 받아 죽자 영종이 이를 빌미로 효성왕 4년에 반란을 일으킨 것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해진다.

한편, 삼모부인의 이름에도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모부인의 ‘三毛’는 머리카락, 거드랑이털, 그리고 陰毛의 셋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삼모부인이 자신의 몸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즉 자신의 배경이 되는 세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이름과 그 의미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예는 嚙童과 月明師에서도 찾을 수 있다.

55) 주 47)에서 인용한 <속일본기>에는 김웅이 김순정의 ‘孫’이라고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김웅이 김순정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김웅과 삼모부인은 남매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웅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김수태는 김웅이 반왕파임을, 이호영과 이영호는 친왕파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삼모부인이 쫓겨날 당시 김웅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로 보아 당시 삼모부인의 세력은 매우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경덕왕은 삼모부인이 자신의 왕권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삼모부인을 폐출하고, 경덕왕 2년(743)에 滿月夫人을 새로 왕비로 맞는다.

만월부인은 角干 依忠의 딸로, 諡號는 景垂王后, 景穆王后라고 불렸다.⁵⁶⁾ 만월부인의 부친인 의충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 4곳 나온다. 의충은 성덕왕 34년(735) 정월, 당에 신년하례를 하러 갔으며, 같은 해 2월 귀국하면서 신라에 패강 이남의 땅을 주라는 조칙을 받아가지고 오고, 효성왕 원년(734)에 중시에 임명되었으며, 효성왕 3년(739) 정월에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그것이다.⁵⁷⁾ 이로 보아 의충이 성덕왕대와 효성왕대에 걸쳐 왕성하게 대외 활동을 했으며, 또 그 만큼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비록 만월부인이 경덕왕과 혼인할 당시 만월부인에게는 부친이 없었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 보탬이 될 만한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폐출된 삼모부인을 대신해 새로 왕비가 된 만월부인이 15년간이나 후사가 없었는데도 내쫓기지 않을 수 있었으며, 또 혜공왕을 대신하여 섭정하는 동안 일어난 귀족들의 많은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⁸⁾ 따

김수태, “통일신라기 전제왕권의 붕괴와 김용,” <역사학보> 99·100합집(역사학회, 1983).

이호영, “성덕대왕신종명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고미술> 125(1975).
이영호, 앞의 글.

56) <三國遺事> 卷 第一 王曆 第一.

後妃滿月夫人, 諡景垂王后, 垂一作穆, 依忠角干之女.

<三國史記> 卷第九 新羅本紀 第三 [景德王]에서는 경덕왕 2년에 舒弗郎 金義忠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다고 했다.

二年, 夏四月, 納舒弗郎<金義忠>女, 爲王妃.

57) <三國史記> 卷 第八 新羅本紀 第八 [聖德王].

三十四年(735), 春正月, 遣<金義忠>入<唐>賀正. - 中略 - <義忠>廻, 勅賜<涇江>以南地.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九 [孝成王].

<孝成王>立(737). 阿澹<義忠>爲中侍.

三年(739), 中侍<義忠>卒, 以伊澹<信忠>爲中侍.

58) 이기백은 혜공왕 11년 6월에 일어난 金隱居의 반란과, 동년 8월에 일어난 廉相과 正門의 반란은 반혜공파가 정권을 장악한 데 대한 반항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영호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친혜공왕적인 반란이든 반혜공왕적 반란이든 만월부인의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기백의 견해대로 그것이 친혜공왕적인 반란이라면 혜공왕과 만월부인이 정치적 실권을 잃기는

라서 경덕왕이 만월부인을 왕비로 맞이한 것은 경덕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략결혼을 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⁵⁹⁾

4. 경덕왕 설화에 비친 일연의 역사 인식

우리는 앞에서 충담사의 <安民歌>와 표훈대덕의 일화를 통해서 권력 다툼 때문에 생긴 사회적인 혼란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모습과, 왕권 강화에 집착하는 경덕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형편은 살피지도 않고 권력 다툼에 치중하는 경덕왕의 행동은 天理를 거스르고 人慾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멸망의 길이다. <孟子>에서, ‘하늘을 따르는 자는 남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⁶⁰⁾고 한 바와 같이 결국 경덕왕의 욕심은 아들인 혜공왕에 와서 그 끝을 맺는다.

(태자가) 8세 때에 왕이 세상을 떠났다. 태자가 왕위에 오르니, 이가 바로 혜공대왕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태후가 섭정하였다. 정사가 다스려지지 못하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루 막을 수가 없었다. 표훈대덕의 말이 맞은 것이다.⁶¹⁾

일연은 단순히 혜공왕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만을 기록하지 않고, ‘표훈대덕의 말이 맞은 것이다’라는 말을 뒤에 붙였다. 그리고,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했지만 아직도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고 말 그대로 혜공왕에 대한 반란이라면 이를 진압한 만월부인의 세력이 상당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이기백, 앞의 글, 232-236쪽.

이영호, 앞의 글.

- 59) 만월부인의 이름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滿月’은 종종 포용과 多産을 상징하는데, 만월부인은 그 이름과 같이, 도량이 작은 경덕왕을 포용하는 한편, 자신의 세력을 이용하여 아들로 상징되는 경덕왕의 왕권 강화 정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데에 일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 60) <孟子> 離婁章句上
孟子曰：“天下有道，小德役大德，小賢役大賢，天下無道，小役大，弱役強，斯二者天也，順天者存逆天者亡。”
- 61) 至八歲，王崩。太子卽位，是爲惠恭大王。幼冲，故太后臨朝。政條不理，盜賊蜂起，不遑備禦，訓師之說驗矣。

第二 [惠恭王]에는 혜공왕 4년에 일어난 角干 大恭의 반란을 자세히 기술한 후 ‘표훈이 나라가 위태롭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⁶²⁾라고 하였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예언한 표훈대덕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 기록한 일연의 의도이다. 일연은 왜 그것을 두 번이나 기록하였을까?

그런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혜공왕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진 원인을 각기 달리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왕이 어렸을 때 왕위에 올랐으나, 나이가 들자 음악과 여색에 빠져, 아무 때나 법도를 잃고 놀러 다니며, 기강이 문란하여 재난과 이변이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인심이 이반되고 사직이 위태로웠다⁶³⁾

혜공왕이 이미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돌이 되면서부터 왕위에 올라서까지 노상 여자들의 놀이를 하여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곧잘 도사들과 어울려 놀았다. 그래서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져 마침내 선덕왕과 김양상에게 죽음을 당했다⁶⁴⁾

앞의 것은 <三國史記>의 기록이며, 뒤의 것은 <三國遺事>의 기록이다. <三國史記>에는 혜공왕이 음악과 여색에 빠져 나라가 어지럽게 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三國遺事>에는 혜공왕이 여자들의 놀이를 하고 곧잘 도사들과 어울려 놀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그 원인을 각각 개인적인 결함과 유전적인 결함에서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三國史記>에서는 혜공왕 개인이 방탕하여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으로 본 반면, <三國遺事>에서는 혜공왕이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경덕왕이 딸로 태어날 혜공왕을 아들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

62) <三國遺事> 卷 第二 紀異 第二 [惠恭王].

七月三日, 大恭角干賊起. 王都及五道州郡, 并九十六角干相戰大亂. 大恭角干家亡, 輸其家資寶帛于王宮. 新城長倉火燒, 逆黨之寶穀在沙梁牟梁等里中者, 亦輸入王宮. 亂彌三朔乃息, 被賞者頗多, 誅死者無算也. 表訓之言國殆是也.

63) <三國史記> 卷 第九 新羅本紀 第九 [惠恭王].

(十六年)王幼少即位, 及壯, 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杌隳.

64) 小帝既女爲男, 故自期啐至於登位, 常爲婦女之戲, 好佩錦囊, 與道流爲戲. 故國有大亂, 終爲宣德與金良相所弑.

고 있다. 즉, 김부식은 그 원인을 해공왕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지만, 일연은 그 원인이 경덕왕에게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경덕왕에게 있다. <安民歌>에서 보이는 당대의 혼란하고 비참한 현실도, 해공왕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해공왕이 죽게 된 것도 경덕왕에게서 비롯한다. 왕권 강화에 대한 집요한 집착,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다. 충담사와 표훈대덕이 이를 지적하고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경덕왕의 모습은 권력의 화신과 같다. 일연이 나라가 어지러워진 원인을 경덕왕에서부터 찾은 것은 백성들의 願望을 무시하고 이같이 집요하게 왕권 강화를 추진한 경덕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롯한다. 비록 일연이 왕실을 비롯한 권력층과 비교적 가까이 있었지만,⁶⁵⁾ 무신집권기를 거쳐 원의 내정간섭을 경험한 그로서는 지배층의 잘못에서 오는 국가의 위기와 백성들의 고통이 더욱 가슴아팠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훌륭한 정치를 베풀 자질도 없으면서 권력에 대한 욕심만 앞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덕왕의 욕심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앞에서 해공왕대에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기록한 다음에 이는 표훈대덕의 말이 맞은 것이라고 일연이 덧붙인 것은 바로 경덕왕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왕권 강화에만 집착한 것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라고 할 것이다. 일연이 왕을 일반 백성과 생래적으로 구별되는 존재로 보면서도,⁶⁶⁾ 여기서 경덕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역사와 문학이 어떻게 접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三國遺事>의 서술 방식과 거기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三國遺事> 중에서 史書의 성격이 짙은 紀異 중에서 문학적 형상화가 돋보이는 경덕왕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은 다음과 같다.

65) 朴龍雲, 高麗時代史(下)(一志社, 1987), 631쪽.

66) 정출헌, 앞의 글, 164쪽.

먼저 경덕왕설화는 설화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安民歌>는 경덕왕대의 ‘非安民的 社會相’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安民歌>는 경덕왕이 추진한 왕권 강화 정책과 그에 반발하는 귀족들과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진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경덕왕설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문학적 상징을 통해 형상화하였는데, 일연이 경덕왕의 성기를 거론한 것은 경덕왕이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과 권력에 대한 경덕왕의 욕심이 지나치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덕왕의 권력욕은 왕권 강화 정책을 불러 왔으며, 자질의 부족은 나라의 혼란을 가져 왔다. 또한, 경덕왕이 표훈대덕을 만난 것은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와 더불어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삼모부인을 폐출한 것은 삼모부인에게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새로 만월부인을 맞은 것은 그녀에게 경덕왕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일연은 혜공왕이 죽은 이유를 혜공왕 개인의 문제에서 찾지 않고 유전적인 문제에서 찾았는데, 이는 백성의 願望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욕만을 충족시키려는 경덕왕의 욕심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